

교차로

국내 선방들며 수행지도

송산스님 (화계사 조실)은 미국 등지의 해외 불교단체에서 포교활동을 하다가 지난 10월 28일 귀국했다. 회계사에 주석하며 국제선원과 계몽산 심원사승 선방수좌들의 수행을 지도할 계획이다.

월정사 주지 유입

현해스님은 지난 2일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월정사 주지에 재선

됐다. 민주적 방식인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스님은 총무원장의 발령으로 유입이 확정된 다.

고흥군 박사 초청 '釋'강연

법산스님 (동국대 정각원장)은 오는 14일 오후 4시 정각원에서 고

흥군 박사(전 전북대 총장)를 초청, '한국의 선'을 주제로 법회를 갖는다.

한·미안마교류협 준비위원장

법해스님(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은 지난달 25일 중국 관공호텔에서 열린 한



선출했다.

대각국사 탄신기념 보살계

지허스님 (태고종 선암사 주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조계산 선암사에서 대각국사탄신 9백40주년 기념 보살계 및 만도불사를 봉행한다.

보살계 대법회 봉행

광진스님 (정종선원 주지)은 오는 27~12월 11일까지 무진장스님을 증명법사로 보살계 대법회를 봉행한다.

승가대 총무처장에 선임

해관스님 (구미포교원장)이 지난달 30일 중앙승가대학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총무처장으로 선임됐다.

獨·伊동 유럽 7개국 순방

황학현(불교교육연구원장)은 대한 불교소년소녀합창단 유럽공연 준비차 지난달 15~29일까지 독일·이태리 등 유럽 7개국을 순방했다.

한국회화협회 전시회

이덕영씨 (한국회화협회장)는 제 15회 한국회화협회전을 오는 8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기람미술관에서 열고 있다.

日韓불교교류협의회장 다나가 닛준 스님

90여명의 참가단을 이끌고 제16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 참가한 일·한 불교문화교류협회장 다나가 닛준스님(82)은 "한 일 양국은 싸움 많이 하면서 자라는 형제"라는 말로 한일 양국 관계를 표현했다. 국가라는 개념에서 한 발자국만 떠나면 얼마든지 친밀할 수 있는 관계이기에 한국과 일본의 불자들이 두 나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



"양국 우호관계 정립 불자의 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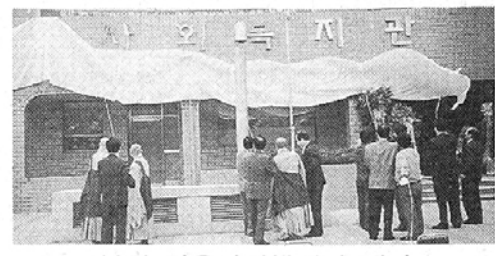
는데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이 두번째 한국 방문이라는 스님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로서 한일 불교교류대회가 양국 불자들에게는 무척 소중한 기회"라면서 불교행사마다 수많은 대중이 모여드는 한국불교를 부러워했다. 일본은 국민의 85%가 불자지만 전국적으로 큰 행사를 치르더라도 많은 대중을 모으기가 힘이 든다고 양국을 비교했다. 지난 9월 일본의 각 종파가

모여 일한 불교교류 협회장으로 추대됐을 때 처음엔 고사했지만 한국과의 인연으로 취임을 수락했다는 다나가 회장은 특히 경주와 같이 아름답고 고옥한 천년고도에 와보게 돼 무척 인상적이라고. "많은 불교유적을 지닌 경주에 고수찰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유적과 과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다나가 스님은 일련종 대본산 지사본문사 주지로, 차기 일련종 종정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주=이경숙 기자)



대한민국 종교음악제 성료

제6회 대한민국 종교음악제가 지난 2일 오후 7시부터 국립 중앙극장 대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음악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일주스님 주된식 문제 부장관 불교방송이사장 종하 스님 기독교 방송사장 권호경 목사 평화방송사장 박신언 신부 천도교 김재종교령 NCC 김동원총무 광우스님 등 각 종교계 지도자들이 참가 종교의 화합을 염원했다.



부천 덕유사회복지관 개관

조계종 석왕사 부설 덕유사 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이 지난달 28일 부천시 동북복지관에서 개관식을 거행했다. 덕유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아동에서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영담스님시현스님 안동신·배기선(국회의원) 김장호씨(원미구청장) 한병환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동국대 정보통신교육센터 개원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복원스님)은 지난 1일 오전 11시 전자계산원에서 정보통신교육센터 개원식을 봉행했다. 9월 15일 (주)데이콤과 산학



김인덕교수 화갑기념논총 헌정

'현강 김인덕박사(동국대학교) 화갑기념논총 헌정식'이 지난달 28일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김인덕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고 성실히 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대산 삼문종정, 김열태 한국불교학회장, 송석구 동국대 총장, 정태수 내부처장관 등 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본받을 만한 말·행동하는게 포교"

포교사 고시 응시한 미화원 명순식 할머니



"문제지를 받고보니 아무 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도 돌보기를 대고 꼼꼼히 살펴보니 문제들이 불교대학에서 듣고 배운 것이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조계종이 실시한 포교사고시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시험을 치른 동국대 미화원 명순식(68세 병명 보명화) 보살은 "난생 처음 받아본 시험지가 얼얼할때 내내 관세음보살만 찾았다"고 웃는다. 명보살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미화원을 하면서 새 아이를 남부럽지않게 키운 것

은 부처님전에 기도한 덕이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알고 싶어 공부를 시작했고 포교사고시에 응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명보살은 "배우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정식포교사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며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다보니 이들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곧 포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엽)

"소홀했던 분야 찾아서 일 할래요"

우리는선우 학생회 황경수 초대회장



"단순히 범죄만 보는 학생회가 아닌 움직이는 불교학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 28일 구룡사에서 창립 법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우리는 선우 학생회 황경수(항공대 3년) 초대회장은 "젊은 불자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일하는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회장은 "그동안의 불교가 정적인 어른들의 불교였

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선우 학생회는 깨어있는 새로운 불교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내보냈다. 황회장은 구체적인 활동으로 환경운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들면서 "그동안 불교계가 소홀했던 분야를 찾아 일하는 학생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30여명의 회원이 등록된 우리는 선우 학생회는 상대용교수(건국대)를 지도법사로 우리는 선우 사무실에서 매주 일요일 법회와 교리공부를 하고 있다.

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선우 학생회는 깨어있는 새로운 불교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내보냈다. 황회장은 구체적인 활동으로 환경운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들면서 "그동안 불교계가 소홀했던 분야를 찾아 일하는 학생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30여명의 회원이 등록된 우리는 선우 학생회는 상대용교수(건국대)를 지도법사로 우리는 선우 사무실에서 매주 일요일 법회와 교리공부를 하고 있다.

탐방 대구 개인택시정범회

대구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면 누구나 고승대덕의 법문을 쉽게 들을 수 있고 달랑거리는 열주를 볼 수 있다.



이렇듯 택시에 열주달기가 보편화된 것은 개인택시 운전불자로 구성된 대구 개인택시 불교정범회(회장 김주본)가 87년 4월부터 '열업용차량 열주달기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이다. 거리의 포교사 혹은 달리는 법당으로 일컬어지는 정범회는 지난 86년 원각스님(정법사 주지)의 원력으로 부처님의 정법수호 및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창립했다.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는 정범회는 그동안 회원배가운동과 알찬 신행활동으로 현재 등록회원 5백명, 활동회원 2백60여명이나 되는 대규모 신행단

전국기능올림픽 임원 및 선수 수송에서부터 맹인불자 등 반대회 수송 및 안내, 예천 연꽃마을 돌기, 소년소녀가장돌기, 양남비 불매운동, 효도관광 등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손꼽

'달리는 법당' 최일선 포교사

86년 창립 회원 5백여명... '등글은 삶' 지향 열주달기·효도관광·소년가장 후원 벌여

기 어렵게 정돈. 특히 차량으로 인한 대기로 염이 날도 심각해 집에 따라 만회라도 하려는듯 지금까지 6차례에 걸친 자연보호 캠페인도 벌였다. 범문태일을 들어준다거나 경전의 말씀을 직접 전함으로

써 포교하는 회원들은 먼길 떠나는 나그네의 발이 되어 주는 한편 승객들의 마음의 짐까지 덜어주는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 뼈대한 수입으로 인한 생활

달리는 법당 최일선 포교사

86년 창립 회원 5백여명... '등글은 삶' 지향 열주달기·효도관광·소년가장 후원 벌여

불안정, 장기간의 운전으로 인한 만성 소화불량과 허약화 등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 대부분 7년 내지 10년 이상의 무사고 모범운전자임을 감안한다면 정범회원들이 모범불자임을 짐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동근 차비처럼 동근 운전대처럼 동글게 회전하는 차의 궤적처럼 원만구족한 삶을 지향하는 정범회 회원들은 물의 흐름과도 유사한 교통의 흐름 속에서 삶의 순리와 역리를 깨닫기도 한다.

달리는 법당의 최일선 포교사

한대의 택시를 하루평균 1백여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택시포교는 김주본회장의 말대로 '황금어장'인지도 모른다.

이윤호 기자

(사) 한국불교 발전 연구원 '95년 추계 세미나 및 동국대학교 승가 총동문회 정기총회

주제 : 21세기 한국승가의 선교육 후득도(先教育 後得道) 제도 방안

다가오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시대상황속에서 승가가 시대요구에 적절히 대처하며 사회를 계도하는 정신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현 승가교육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본 행사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불기 2539년 11월 13일(월) 오후 2시

■ 장소 : 소피델 엠베서디 호텔 서강

- 기조강연 - 한국불교 出家衆의 교육제도에 관한 試論...현해스님/월정사주지 본연구원 상임이사 소 주계 1.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성직자의 역할...윤원철교수/서울대종교학과 2. 선교육 후득도 제도의 구체적 방안...홍선스님/중앙승가대학교수
- 사회자 - 정인스님/중앙승가대학교수
- 토론자 - 법산스님/동국대학교수 향적스님/조계종교육원 교육부장 박선영교수/동국대학교육학과
- 자료집 부록 - 원불교 성직자의 교육과정과 개선방안...정성길교무/원불교서용교구청 천주교 성직자의 교육과정과 개선방안...양재오신부/한국외방선교회 개신교 성직자 교육과정과 개선방안...이정희목사/한국신학연구소

*당일 17:00부터는 동국대학교승가총동문회 정기총회가 동장소에서 개최됩니다.

문의 ☎ 02)736-6202~3

주 최 (사) 한국불교 발전 연구원
주 관 동국대학교 승가총동문회
후 원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담화문

- 승가 기본교육 이수를 촉구하며 -

개혁회의를 통해 종단 교육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고자 교육원이 새로이 개원되었습니다. 이에 교육원은 설립취지에 맞게 종헌종법의 규정대로 모든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려법 제18조에서 비구·비구니계를 받으려는 자는 '첫째, 연령 20세 이상인 자, 둘째, 종단에서 설치 또는 지정된 기본교육기관인 승가대학 또는 기초선원과정을 이수한 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중앙승가대학·지방승가대학·기초선원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승가대학은 교육법 제67조에 의거 교육원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된 승가대학을 이수해야만 기본교육이수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교육부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이수하는 자에 한해서는 기본교육이수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법 제7조에서 예비승인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는 만의를 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이 개원된 올해(불기 2539년)부터, 즉 제8기와 제9기 행자교육원을 이수한 예비승인 사미(나)는 반드시 만의가사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각 본사 및 승가대학에서도 이를 숙지하시고 학인들로 하여금 모든 의식 때 반드시 만의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교육기관 이후로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은 학원·승가대학원·율원·선학연수원입니다.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하고 수행과 교육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단의 모든 스님들은 승려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법 제108조에 의거하여 법계심사와 종단의 인사에 있어 불이익을 당합니다. 자이완성과 정토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할 우리 승가들에게 기본교육과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기를 공고합니다.

석가세존의 자각각다 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적지인신 건성성불 전법도생함을 종지로 하는 우리 종단의 모든 수행자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정진에 원만한 성취·회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39년 11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김원산